

유교만으로는 민생고 해결안돼 진언 유행

대중신앙의 상징 진언집 간행과 망월사

조선조에 이르러 토지와 노비를 몰수당한 사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여러 차례 종파가 축소돼 결국 선교양종으로 통합됐다. 명맥만 유지되다가 급기야 양종마저도 폐지되면서 불교의 근간이 흔들렸다. 우수한 인재와 재원의 부족으로 교리연구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우수한 신라와 고려의 불교문화에 버금가는 문화를 창출할 힘이 없었다. 그저 불법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기원했다.

교단이 그러다보니 신도들도 깨달음과 번기복 불교에 매달렸다. 경제력을 상실한 사원은 대중의 바람을 외면하기 힘들었다.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원의 유지를 지속하기 위해 불교의례는 점점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의례에 치우치게 됐다. 이런 주술화의 핵심은 진언에 있다. 이것은 불교신앙의 신비함이 응축된 아이콘이다. 예전부터 신비로움을 전하기 위해 진언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그런 진언이 의례에 상용되고 체계화되면서 진언집(眞言集)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전 한양을 둘러싸고 있던 땅이 경기도 양주였다. 워낙 넓은 지역인 탓에 지금은 양주, 남양주 등으로 나누어졌다. 양주 땅에서 서울과 의정부의 경계를 나누고 있는 것이 도봉산이다.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이 몰리는 이곳에 망월사가 있다. 이곳과 더불어 이웃한 회룡사 그리고 불암산에 있는 불암사에서 간행된 진언집은 조선시대 대중신앙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조선시대 진언집은 연산군 2년(1496) 한양에서 관찬으로 진언권공(眞言勸供)이 간행된 이래 풍기 소백산 절암(筵菴), 전라도 무방산 안심사, 평안도 묘향산 보현사 불영대, 경상도 성주 불영산 첨개사, 그리고 양주 땅에서는 회룡사와 망월사 그리고 불암사 등에서 간행됐다.

조선시대 진언집은 관에서 주도한 관찬보다 사찰에서 간행된 사찬이 많았다. 유교를 치국의 이념으로 삼은 조선이 진언집을 간행한 것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유교로써 해결할 수 없기에 불교에 의존한 것이다. 간행 후 귀천에 관계없이 암송해 복덕을 구하려는 내용이 그런 방향을 시사한다.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찬의 경우 신앙적 지침서인 진언집에 대한 보호의식이 담겨져 있다. 이미 있었던 판본이 오래돼 판독할 수 없게 되자 불편함을 느껴 다시 간행했다. 진언을 독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발음이다. 그렇게 해야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여러 번 베껴 쓰는 가운데 글자가 빠지거나 음이 변한 것이 있어 신통력이 미치지 못할까 염려돼 간행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런 사찰의 경우 간행 비용이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화주보살을 두고 많은 사람의 동참을 권선하는 것이 통례였다. 특히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했다. 특별히 궁궐에 있는 상공들이 많

은 재원을 보시해 간행을 도왔음이 보인다. 그리고 시주자 명단을 보면 수행자와 거사들의 이름보다 여성의 이름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조선조에 들어서 여성 신도들의 신생활동이 활발했음을 시사한다.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시주자의 도움 없이 사찰 단독으로 간행한 경우도 있었다.

진언집이 간행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배불정책으로 인한 사원경제의 위축과 신앙적 기반의 상실은 불교의 근간을 어렵게 하는 조치였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왕실과 지도층의 신앙적 귀의를 상실한 불교로서 민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인들이 원하는 신앙적 결과에 대한 강조가 필요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의해 진언집의 서문과 발문 등에 진언을 수지독송 하면 공덕이 높다고 하는 내용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이다.

진언집은 조선 초기에서 후기에 걸쳐 다양하게 간행됐지만 초기보다는 후기에 이를수록 빈번했다. 이것은 조선조 불교신앙의 변화를 알 수 근거가 된다. 조선 초 배불이 시작됐지만 고려조의 분위기가 있어 기복적 신앙보다 교리적 탐구가 일부 남아있었다. 배불이 강화되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신행은 사라

조선 후기 사찰서 진언집 편내
유교 통치 이념 아래 민중 배려한
국가·민중 차원의 종합 신앙의식서
후일 경전 축소 독송 신앙과 일치

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대중신앙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여러 진언집을 보면 한문과 한글 그리고 범문으로 병기돼 있다. 이런 형식 가운데 범어를 직접적으로 표기한 것은 진언이 가지는 본래 신앙적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표기였다. 그리고 그 옆에 국문으로 표기한 것은 독송신앙을 강조하고 그 음을 쉽게 따라 읽을 수 있도록 한 배려였다. 성종 16년(1485)에 간행된 진언집은 인수대비의 명을 받아 학조(學祖)가 간행했다. 이때의 발문을 보면 한글을 병기한 까닭이 잘 나타나 있다. 당시 발간된 대부분의 진언집이 범자와 한문만으로 돼 있어 일반인들은 암송하거나 익히기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언해본을 간행해 귀천에 관계없이 암송해 복덕을 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서술돼 있다. 특히 신앙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영험담이 한글로 간략하게 서술되고 있는 신앙적 영험을 일반인에게 쉽게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였다.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 초에 이르면 진언집은 주로 양주 망월사와 불암사에서 간행됐다. 망월사에



도봉산 망월사 전경. 망월사는 회룡사·불암사 등 인근 사찰과 함께 조선 후기 진언집이 간행되던 사찰이었다.

서는 1800년(정조 24) 영월낭규(映月郎圭)가 전라도 화순 만연사에서 간행된 판본을 수정해 증간했다. 영월은 망월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선월당을 세우는 등 전각의 건립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불서의 간행에도 주력한 인물이다. 진언집이 증간될 때 발문을 쓴 사람은 수관거사(水觀居士)였다. 그 역시 1896년 천봉탑비(天峰塔碑)의 명(銘)을 쓰는 등 망월사와 관련이 깊다.

망월사에서 증간된 진언집은 목판으로 모두 121판이나 되는 방대한 양이며,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불사였다. 시주자 명단만 목판으로 3판이나 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시주자 가운데 특히 상공 6명의 이름도 보이는데 이들이 발원한 내용이 모두 죽은 부모의 영가를 위한 것으로 조선시대 신앙사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런 불사에는 양주지방에 사는 신도들만 동참한 것이 아니었다. 설악산 신흥사와 금강산 건봉사도 시주자 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전국적인 동참이 있었던 것 같다.

진언집 증간의 감독을 맡은 거사 지영(智瑩)은 1795년(정조 19) 양주 불암사에서 간행한 <불선전

지팔양신주경>의 간기에도 보이는 것을 보면 망월사와 불암사의 간행사업에 모두 관여하고 감독했음을 알 수 있다. 양주 불암산 불암사에도 1795년 무렵 <대승무량수장엄경(大乘無量壽莊嚴經)>, <안택신수경(安宅神呪經)>, <진언요초(眞言要抄)> 등 36종이 넘는 불서를 판각했다. 이들 대부분은 분량이 적으나 구복신앙적인 성격을 가진 경전과 진언집이었다. 이런 사실은 한 지방의 불교신도는 단지 한 사찰과 연계돼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며,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사찰과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망월사 진언집 간행 이전 양주에 있는 사찰에서 진언집이 간행된 예가 있다. 그것은 도봉산 회룡사(回龍寺)에서 1636년(인조 14) 간행된 <결수진언집(結水眞言集)>이다. 회룡사는 1630년 비구니 예순(禮順)이 회룡사를 중건한 후 6년 뒤 진언집을 간행했다. 사찰이 중건되고 범회가 개설돼 신도들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의식집의 간행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양주에 위치한 사찰에서 발간된 진언집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먼저 국가적 차원과

민중적 차원의 종합적 신앙의식이 담겨져 있어 당시 시대적 여건 속에서 불교 신앙의 여러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유교적 치국이념이 정립됐지만 지배층과 일반 기층민의 종교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형태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진언집에 실려 있는 진언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량없는 종교적 복덕에 대한 신앙관이 내재돼 있다. 실제 진언집의 말미에 그런 신앙적 영험을 첨부해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불교의식에서 많은 진언들이 독송되는 신앙형태가 갖춰졌다. 이런 신앙적 경향은 밀교신앙 이외에 다른 신앙관에도 진언이 첨부돼 대중들이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그 진언을 독송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신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런 신앙관은 이미 한국불교에 내재돼 있던 경전을 축소해서 독송하는 신앙과 의미가 일치한다.



김경집/전주대 교수

사주프로그램 CD

명리보감

命理寶鑑

최고의 역학프로그램

1. 명리작명판
사주명리 + 작명 + 궁합 + 택일 + 고객관리
2. 명리통합판
(1.명리작명판) + 주역·육효 + 자미두수 + 양택
3. 기문통합판
(2.명리통합판) + 기문 + 육임 + 구성학 + 현공

사주명리·육효 동영상강의DVD제공하여 초보자도 공부하며 사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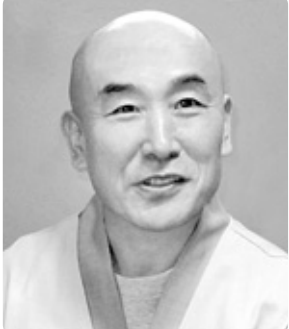
NAVER [명리보감](#) 검색 www.goodcycle.com 등 검색하세요.

명리보감 역학연구소

☎ 031)493-3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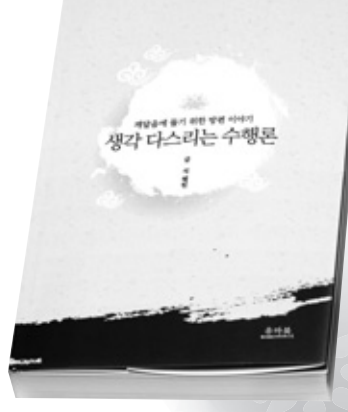
생활속의 간화선

불교방송 출연중!! 밤 9시 55분



수행 결과

- 법화경 독송중 범열
- 화엄철야 21일 신중조복
- 만행을 통하여 애착버림
- 낙엽발는 소리 생각그림
- 우울증 환순간 원인제거
- 금강삼매경(수행론) 출간예정(12)



생각다스리는 수행론

간화선(看話禪)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좋다, 싫다하는 차별 없는 것이 공(空)에 들어간 것이나 정진하여 공(空)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승 법인 선(禪)이다. 간화선 수행이 생활의 일치 되도록 경전인용과 일상이 운데 증득을 바탕으로 서술 한 책이다.

깨달음은 본인 스스로 안다. 이제는 방편을 말하리라.

2차 - 수행론 강의 2월 2일 개강 (접수중)
매주 목요일 밤 7시 30분 ☎ 031)721-2148~9

무아선원 선원장 혜원 합장